

전남 서부권

대흥사 진입로 위험천만 '누더기 도로'

젖은 비로 곳곳 파여 도로기능 상실 사고 초래

해남군 "예산 없다" 땀질처방... 관광객들 불만



해남 대흥사 진입도로의 노면이 누더기처럼 파여 사고 위험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내 대흥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온통 파여 있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대흥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광 해남'의 이미지에 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해남군 삼산면 구립대흥사 매표소 입구에서 사찰 입구까지 약 2km 구간의 왕복 2차선 도로. 대흥사 진입도로는 젖은 비로 인해 곳곳이 패인데다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겨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련 기관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용을 잘알고 있지만 사찰내 도로는 도립공원 관리지역으로 현재 해남군이 위임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올해는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남의 대표적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대흥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 손상과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대흥사를 찾은 관광객 정모(47.경기도 안산시)씨는 "여름 휴가차 해남을 찾아 제일 먼저 대흥사를 찾아 왔는데 누더기 도로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기본적인 도로 시설마저 이렇다면 다른 곳은 가보나마나 아니겠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 김모(61.해남군 삼산면)씨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도로를 가리키며 "이게 도로라고 할 수 있나. 산에 나 있는 임도도 이것보다 낫겠다"면서 "이곳 도로는 나무숲으로 인해 습기가 많은 곳인데 매년 땀질식 처방만 하고 있어 차제에 완전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서울지역 학생들 영암서 도기체험

국내 최초의 '시유도기(施油陶器·유약을 칠한 도기)' 생산지인 영암군을 찾은 서울지역 학생 50여명이 27일 영암도기박물관에서 (영암군 제공)

완도 전북·다시마 등 해양생물 산업화

완도 광어·우럭 축제

화장품 등 기능성제품 개발 러시

내일부터 명사시서제

완도군이 해양생물 기능성제품 개발에 나선 결과 화장품과 뇌세포 대사물질 등 다양한 시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에 의뢰한 '해양생물 기능성제품 개발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기능성 화장품과 두뇌활성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은 전복과 비파에서 추출한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해양 한방화장품 4종으로, 피부노화와 염증억제, 아토피억제, 주름개선, 미백효과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센터는 또 전통 청국장 발효법

을 활용해 다시마에서 뇌세포 대사를 발효시킨 GABA를 추출해 만든 전복해초 청국편을 개발했다.

GABA는 체내 신경전달 물질로 뇌혈류개선, 산소공급, 기억력 증진,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해소, 대장암 세포증식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

완도군은 이번에 개발된 시제품을 산업화하기 위해 제품생산 기업을 선정하고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해양생물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개 연구사업에 23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의 특산물인 광어와 다시마 등을 소재로 한 축제가 열린다.

완도군은 29일부터 나흘간 남해안 최고의 명품 해수육장인 신지면 명사시서 해수육장 일대에서 '광어·우럭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광어·우럭이랑 놀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요리 시사회와 먹을거리 장터, 모래성 쌓기, 모래점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다시마 최대 생산지인 금일읍 해당화 해변에서는 30일 다시마 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건강미인 선발대회와 다시마 초밥 만들기, 다시마 시사회, 다시마 가요제, 다시마 페이스 페인팅, 맨손 활어 잡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항 여객선 접안 시설 교체

민주평통 목포시험 출범

화물적재시간 단축·안전성 확보... 연내 준공

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제주간 카페리 여객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교체로 카페리 이용객들의 승선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항과 제주간 카페리 여객선의 대형화에 따른 기존 접안시설(도고 및 함선)의 국제여객부두 카페리 2호 잔교를 여객선 규모에 맞도록 신규 제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목포~제주간 초대형 카페리선인 1만5000t급 스타크루즈호의 취항에 따라 기존 접안시설 협소로 선박의 안전한 계류 및 차량(화물) 하역시간이 길어지는 등 선박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지속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접안시설이 준공되면 1개 라인인던 차량 적재 구역이 2개 라인으로 늘어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여분 가량 단축되고 안

전을 위해 목포항만청은 해당선사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접안 시설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약 17억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지난 6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목포항만청 최익현 청장은 "이번 접안시설 개선을 통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 확보 및 차량 승·하선 시간 단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험회의가 지난 26일 목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5기 출범식 및 전수식'을 가졌다.

14기에 이어 제15기 협의회장으로 선임한 이상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목포시민과 함께 통일 방안을 실천 해가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재도약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이날 민주평통 목포협의회는 우리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통일시대 목포시민통일문화제 개최 등 정책적 중점으로 실천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한국형 생태관광 10대모델 선정

진안고원 마실길 58km 개통

백운면~성수면 오암마을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잘 보존되고 호젓한 오솔길, 논밭의 전원 풍경이 펼쳐지는 58km 구간의 진안고원 마실길이 열린다.

진안군은 27일 백운면 영모정에서 성수면 오암마을까지 58km를 잇는 진안고원 마실길 개통식을 30일 갖는다고 밝혔다.

진안고원 마실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로 선정된 곳.

군은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주민의 왕래가 잦았던 옛길의 형상을 보존하고 마을간 이동로였던 고개를 복원했다.

평균 해발 300m 이상 고원지대에 있는 마실길답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물길을 따라 걷고, 정감 있는 농촌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는 코스

로 준비했다.

군은 탐방객을 위해 방향표지판과 안내시설, 포토존,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날 개통식과 함께 마을축제 기획행사도 열리는 '6박7일간의 고원길 걷기여행 112.5km' 행사도 시작된다. 걷기 여행은 58km 개통구간에 54.5km 미정비 구간을 일주일에 걸쳐 걷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걷기와 마을축제 참여, 진안이야기 나누기, 마을여행, 엽서 쓰기 등도 할 수 있다.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고원 마실길은 천혜의 산림을 보유한 진안군의 산림생태와 전통역사·문화를 알리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걷기여행 문의는 마을축제 홈페이지(jinanmaul.com) 또는 조직위원회(063-433-5995)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천혜의 풍광을 고스란히

휴가철을 맞아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운일암(雲日岩) 반일암(半日岩)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寺의 유혹, 참나를 찾다

내달부터 템플스테이 운영

실상사 등서 불교문화 체험

사찰에 머물며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8월부터 전북지역 사찰 곳곳에서 진행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찰문화 체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숙소 등을 갖춘 도내 사찰은 모두 7곳. 이들 사찰은 올해 여름 적게는 40명(실상사)에서 많게는 630여명(내소사)까지 템플스테이 체험객을 모집한다.

1박2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은 2만원 안팎이며 실상사는 5박6일짜리 일정을 두 차례 운영한다.

1천4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금산사(063-542-0048)는 108배·참선·반야심경 사경·발원문 작성·야생 차 만들기·스님과의 대화 등을 하면서 삼마를 여행가 강제운 씨, 사찰음식 전문가 신재 스님,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콘서트와 퓨전 국악공연도 곁들인다.

내소사(583-3035)는 예불·초행·108참회·내빈산 트레킹·암자 순례·참선·염주만들기 등을 준비

했다. 선운사(561-1375)에서는 타종 체험·낙조트레킹·도솔암 포항·차담 등을, 송림사(862-6394)에서는 전통불교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실상사와 송광사, 내장사 등도 함께 체험, 전통놀이 등을 가미해 산문을 열었다.

도내 사찰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09년 8040명, 2010년 1만56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외국인도 매년 200명 안팎이 참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뉴스 브리핑

익산시 옹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조례안 제정

익산시는 27일 옹포관광지 공가나루지구에 조성하는 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옹포캠핑장에는 오는 10월까지 자동차숙박지 6면과 일반캠핑장 39면이 조성되며 전기배전과 급수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11월 개장 예정인 오토캠핑장 관리와 운영, 민간위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사용료는 오토캠핑장의 경우 성수기에 1만5000원, 비수기 주말과 공휴일은 1만5000원, 평일 1만원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북경총, 제 1기 노사대학 CEO과정 개설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북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1기 '노사대학 CEO과정'이 개설됐다.

이 과정은 최고경영자와 임원, 노동계 대표, 각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 전문가

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됐다. 강사로는 이체필 장관, 김홍걸 FUN리더십센터 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백영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전북경찰,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 전 지역에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는 78건이 발생해 10명

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기간 장거리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道, 지자체와 함께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김완주 도지사와 일선 시군 부단체장들은 27일 도청에서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 추진상황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재 78%에서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조달 우수제품지정'과 '나라 장터 등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관광객들 남원 광한루원 가장 선호

상반기 74만8000명 다녀가

전북지역 내 관광지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남원의 광한루원(廣寒樓苑)을 가장 많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27일 올해 상반기 도내 유료 관광지 38곳의 입장객을 조사한 결과 광한루원이 7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 모악산도립공원(53만 6000명), 부안군 내소사(41만명)가 뒤를 이었다.

전주동물원과 고창읍성에도 각각 39만7000명, 35만5000명이 찾았다. 경북공 경회루, 진주 축서루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누각인 광한루원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가 서려 있을 뿐 아니라 정원으로서 독특한 조경양식을 자랑한다.

무료 관광지 중 방문객이 많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150만9000명), 고창 공음학원농장(110만7000명), 군산 은파유원지(106만1000명), 새만금방조제(99만9000명), 남원 관광지(65만 8000명) 순이다.

전북도는 하루 평균 16만 명씩, 총 2천853만 명이 올해 상반기에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